

지금 이 사람

## 살아 있는 자연어 연구가 진정한 국어학의 길 - 서울대학교 최명옥 명예교수를 만나다



답변자: 최명옥(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명예교수)

질문자: 권창섭(아주대학교 강사)

때: 2014. 3. 26.

곳: 서울 양재동의 최명옥 교수 개인 연구실

우리는 모두 ‘같은’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을까? 답은 ‘그렇다’와 ‘아니다’가 동시에 될 수 있다. 우리는 모두 한국어라는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는 동시에 각기 다른 방식으로 한국어를 구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언어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나눈 것을 방언이라 부르므로, 우리 모두는 한국어 화자인 동시에 방언 화자인 셈이다.

최근 각계각층에서, 표준어의 강력한 위세에 눌려 여러 지역의 방언들이 소멸할 위기에 처해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역 방언들이 소멸하게 되면 우리의 언어생활은 어떻게 될 것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국어학계가 해야 할 일은 또 무엇일까.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최명옥 명예교수를 만나 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권창섭** 오랜만에 뵙습니다. 퇴임 이후의 생활이 궁금합니다. 특별히 하고 계신 일이라든가 계획하고 계신 일이 있는지요?

**최명옥** 퇴임하면서 가장 먼저 생각했던 것이 학교에 재직해 있을 때와 똑같이 생활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집에서 여덟 시 정도에 나와서 다섯 시쯤 귀가하고 있죠.

**권창섭** 특별한 저술 활동은 하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최명옥** 우선 《경주어 사전》을 마무리지어야 하고, 지난해에 교육부 주관 한국학연구재단 주최로 ‘석학과 함께하는 인문 강좌 6기’에서 ‘한국어의 방언’이라는 제목으로 강연한 내용도 책으로 만들어야 하지요.

**권창섭**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강연이었다 보니 교양서 형식으로 나오겠네요?

**최명옥** 그렇죠. 그런데 일반인이 재미있고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글을 쓰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언어학적 소양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글을 쓰는 것보다 재미는 있는데 작업이 쉽지가 않네요.

**권창섭** 예전에도 일반인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신 적은 있습니까?

**최명옥** 그런 강연은 딱히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강연을 할 때 청중의 심리를 파악하는 일부터 쉽지가 않더군요.

## 가공된 ‘표준어’가 아닌 살아 있는 ‘자연어’에 대한 연구

**권창섭** 국어국문학과에 입학하여 국어학을 전공하시게 된 계기는 어떤 것이었나요?

**최명옥** 그런 질문을 많이 듣는데, 들을 때마다 곤혹스러운 것이, 제

가 입학할 때만 해도 국어국문학과에 국어학이라는 영역이 있다는 것 자체를 몰랐습니다. 그저 문학 작품 읽는 것이 좋아서 응시하였고 창작 공부하는 곳인 줄 알았지요. 그러다 입학 면접에서 심약 이승녕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국어국문학과는 창작하는 곳이 아니라고.(웃음) 사실 국어국문학과가 무엇을 공부하는 곳인지 알게 된 것은 4학년 때였습니다. 그전까지는 전공에 대해서 관심을 크게 가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다 4학년 때에 졸업 논문을 써야 하니까 전공을 정해야 했어요.

**권창섭** 그때 왜 국어학으로 결정하셨는지요?

**최명옥** 국어학 공부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영어로 된 책을 많이 읽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이 좀 낫겠다 싶었지요.

**권창섭** 특이한 계기네요.

**최명옥** 사실 언어학 공부를 시작하게 된 건 그때부터였던 것이죠. 그 때 봤던 책이 사피어(Sapir)의 《Language》였는데 거의 내용을 몰랐습니다. 그저 대학 졸업 논문을 국어학으로 준비했으니 대학원도 국어학 전공으로 들어오긴 했는데, 들어올 때는 학위논문을 쓰고 졸업까지 할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교사 자격증이 있었으니 먹고살 걱정도 덜했고 수료만 해도 좋으니까 조금 더 해 보자 정도의 생각이었지요.

**권창섭** 공부를 하시다 보니 계기랑 목표가 새로 생기셨나 보네요.

**최명옥** 그때 마침 김완진 선생님께서 서울대학교로 부임해 오셨어요. 제가 첫 지도 학생이 되었는데, 그래도 대학원생이 되었으니 선생님께 질문도 드리고 그래야 하는데, 아는 것이 없으니 질문할 것도 없었지요. 그래서 선생님께 라이언스(J. Lyons)의 책에 붙은 참고 문헌을 보여 드리며 이 중 읽을 만한 책을 좀 표시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선생님께서 일일이 보시면서 꼭 읽어야 할 책은 동그라미, 그다음에 보면 좋을 것은 삼각형 표시를 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또 촘스키의 《S.P.E.》<sup>1)</sup>

도 함께 보게 되었지요. 그런데 읽어 봐도 뭘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일일이 번역을 해 가면서 ‘생성 문법이란 무엇인가’ 그 의도를 파악해 보려 했지요. 현상은 복잡하지만 실재는 단순하다. 언어학은 언어 현상인 음성 언어를 분석하여 그 현상의 밑에 있는 실재를 찾고, 그 실재에서 현상으로 실현되기까지 적용되는, 토박이 화자의 언어 능력에 존재하는 언어 규칙을 밝히는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처음 글을 쓴 것이 석사학위논문<sup>2)</sup>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논문을 보면 제가 아직 생성 문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어요. 거기서 수정하고 발전한 것이 “서남 경남 방언 부사화 접사 ‘-야’의 음운 현상”과 “현대 국어의 의문법 연구”이지요. 결국은 형태소의 기능과 제약이 무엇인가, 그 기본 원리를 알고 그것을 국어에 잘 적용해서 밝히는 것이 지금까지 제 과제이자 의무가 되었습니다.

**권창섭** 특별히 음운론과 방언학 중심으로 연구하게 된 것은 어떤 계기가 있으십니까?

**최명옥** 지도 교수이신 김완진 선생님의 전공이 음운론이기도 하였고, 또 이병근 선생님의 영향도 컸지요. 어느 날 김완진 선생님께서 이병근 선생님과 제가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마련해 주셨어요. 방언을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논문을 쓰신 분이 이병근 선생님이시죠. 그 출발이 “경기 하위 방언의 음운론과 형태음운론 연구”라는 것이었는데 그때 이병근 선생님께서 당신은 그것을 방언 연구로 쓴 것이 아니라 현대 국어 음운론 연구의 일부로 쓴 것이라고 하시더군요. 공식적인 현대 국어 중에서

1) 에이브럼 노 촘스키(Avram Noam Chomsky)가 1968년에 저술한 책, 《The Sound Pattern of English》의 약칭.

2) 최명옥(1975), 경남 삼천포 방언의 음운론적 연구,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도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역의 언어를 현대 국어의 일부로 다루셨다는 것이지요. 그 말씀을 듣고는 ‘아, 나도 이쪽으로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S.P.E.≫나 다른 언어학 개론서에서 언어학의 대상은 ‘자연어’가 되어야 한다는 견해와도 일치했지요.

**권창섭** 그전에는 자연어로서 방언을 연구 대상으로 삼지 않았던 편이었습니까?

**최명옥** 앞서 언급한 이병근 선생님의 논문만 해도, 이병근 선생님께서 그 논문을 쓰려고 이승녕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별로 만족해하지 않으셨다고 하시더군요. 공시적인 것, 그리고 방언을 대상으로 한다고 해서 말입니다. 국어학은 표준어에 대한 연구라야 한다는 관념이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이죠. 이기문 선생님의 ≪국어학 개설≫을 보면 16세기 중엽에 와서 국어는 성조 언어에서 음장 언어로 바뀌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는 경상도 방언에는 아직도 성조가 있다는 언급이 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하면, “국어학이 성조 언어에서 음장 언어로 바뀌었다.”라는 서술에서 ‘국어’는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중부 방언’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제가 늘 문제 삼는 것이 국어의 개념과 국어학의 대상을 달리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서울말’ 또는 서울말을 근간으로 하는 ‘표준어’라는 것은 그 자체가 정책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표준어’에 대한 연구는 그 자체로 중요하지만, ‘표준어’는 언어학으로서 국어학의 연구 대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국어 즉 ‘한국어’는 토박이 한국 사람들이 일상으로 사용하는 말인데, 실제로 그러한 국어는 지역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국어학의 연구 대상은 자연어로서의 한국어, 즉 크고 작은 한국어의 방언 또는 지역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권창섭** 그런데 ‘자연어’를 연구한다고 하면 ‘방언’을 연구한다고 생각

하는 것이 보통인 것 같습니다.

**최명옥** 제 학위논문이 책으로 간행된 것이 《월성 지역어의 음운론》입니다. 서문에서 “이 책에서의 연구 대상이 된 ‘월성 지역어’는 방언학의 연구 대상으로서의 ‘월성 지역어’가 아니라 국어 음운론의 연구 대상으로서의 ‘월성 지역어’이다.”라고 한 것은 국어학의 연구 대상에 대한 그러한 제 생각을 분명하게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국어 학계에서 표준어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국어학 연구’로, 현지 조사 연구는 ‘방언 연구’로 분류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권창섭** 최근 선생님의 생각과 같은 방향으로 국어학 연구 분위기가 바뀌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문법론 영역에서도 기왕의 문어 중심의 연구에서 구어 중심의 연구로 바뀌고 있는 듯합니다.

**최명옥** 그런 쪽으로 바뀌고 있다니 매우 다행한 일입니다. 그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국어학을 전공한 사람이나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 대학이나 대학원 전 과정에서 수강하는 것이 ‘방언학’이나 현대 이전의 국어에 대한 강좌를 제외하면 모두 표준어 중심의 강좌입니다. 그리고 교수들이 쓰는 논문들이 현대 국어 음운론 분야를 제외하면, 모두 표준어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학생들은 현대 국어학은 당연히 표준어를 연구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어학을 연구하는 학생들은 주제를 찾을 수 없어서 논문을 쓰기 어렵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자연어가 국어학의 대상이 된다면 주제를 찾지 못하여 논문을 쓰지 못한다는 말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대학에서 국어학 전공 교수들은 이론 설명을 위한 대상으로서는 표준어를 이용하되 실제 연습에서는 크고 작은 방언이나 지역어를 이용하여 학생들에게 자연어를 대상으로 논문을 쓸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것입니다.

**권창섭** 선생님이나 이병근 선생님 이전의 학계 분위기는 왜 그렇게

표준어 중심으로 연구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최명옥** 표준어 중심의 국어학은 일제 강점기와 깊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절, 뜻있는 분들은 우리가 일본의 지배를 받게 된 것은 국민이 우매했기 때문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국민을 우매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교육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하려면 글을 가르쳐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규범적인 문법 제정이 필요했겠지요. 규범적인 문법이란 표준어에 대한 문법을 말합니다. 이러한 규범 문법이 국어학에 끼친 영향이 지금까지 이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창섭** 여러 지역을 현장 방문하셔서 자연어를 채록하고 연구하시는 데에도 앞장서셨는데요. 이러한 작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최명옥** 앞서 계속 이야기하였지만 언어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국어학 연구란 살아 있는 자연어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자연어로서 국어는 여러 방언으로 구성되어 있으니 현지 조사를 하여 자연어를 채록하는 작업은 그 연구의 바탕을 마련하는 것이고, 그러한 자료를 대상으로 연구하는 것은 현대 국어의 일부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작업이 축적될 때 국어 전체에 대한 공통점과 방언 간의 차이점이 밝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점이 그러한 작업의 중요성이라 하겠습니다.

그것이 내가 해 온 작업과 연구의 목적이었지만, 게으르기도 하고 건강 문제도 있고 하여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정년을 하게 되었습니다.

**권창섭** 선생님께서 연구해 온 ‘음운론’ 분야만이라도 국어 전체에 대한 공통점과 방언 간의 차이점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은데, 그것이 언제쯤 가능할는지요?

**최명옥** 네. 그때 일석국어학상을 받을 때<sup>3)</sup> 소감에서도 언급했습니

다만,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그 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국어라는 것이 대체로 어떤 것인가 희미하게나마 봤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만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요. 동남 방언, 서남 방언 등 남한의 방언을 비롯해서 북쪽의 방언들까지 두루 관찰하여 한국어란 것이 무엇인가를 희미하게 보았는데, 그렇게 본 것을 구체화하는 작업이 제게 남아 있습니다.

**권창섭** 말씀만 들어도 엄청난 일일 것 같습니다.

**최명옥** 엄청난 일은 아닙니다. 개별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종합하여 이야기해야 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일단 종합을 먼저 해 보고 또 개별적인 것을 다시 이야기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료는 일단 갖춰 났으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방언, 소멸하는 종이 아니라 변화하는 종

**권창섭** 강력한 표준어의 영향력 때문에 각 지역어들의 고유한 특색이 많이 사라지고 있으며, 이것이 점차 지역 방언의 소멸을 야기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최명옥** 언어가 생성되고 소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연어를 구성하고 있는 방언들도 생성되고 또 소멸되지요. 메이예(A. Meillet)<sup>4)</sup>가

---

3) 2013년 6월, 일석 이희승 선생의 학문과 업적을 기리는 일석국어학상의 11회 수상자로 선정되신 바 있다.

4) 앙투안 메이예(Antoine Meillet, 1866~1936), 프랑스의 언어학자로 비교 언어학 및 음운 변화의 사회적, 심리적 요인과 관련된 연구에 큰 업적을 남겼다.



이야기했듯이 방언이라는 것은 통일 속의 분열(diversity in unity), 분열 속의 통일(unity in diversity)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의 언어는 크고 작은 방언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어느 시기에는 방언들의 특성이 점차 없어져 단일한 언어로 통일되어 가다가 다시 개별적인 특성을 가진 방언들로 분열되는데, 그러한 과정이 반복되는 것이 한 언어를 구성하는 방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어를 구성하는 방언들은 표준어의 강력한 위세에 눌려 개별적인 특성을 잃어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방언들이 완전히 소멸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얼마 있지 않아 다시 개별적인 특성이 강한 방언들로 분열될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생겨난 방언을 신방언(新方言)이라 부를 수 있을 테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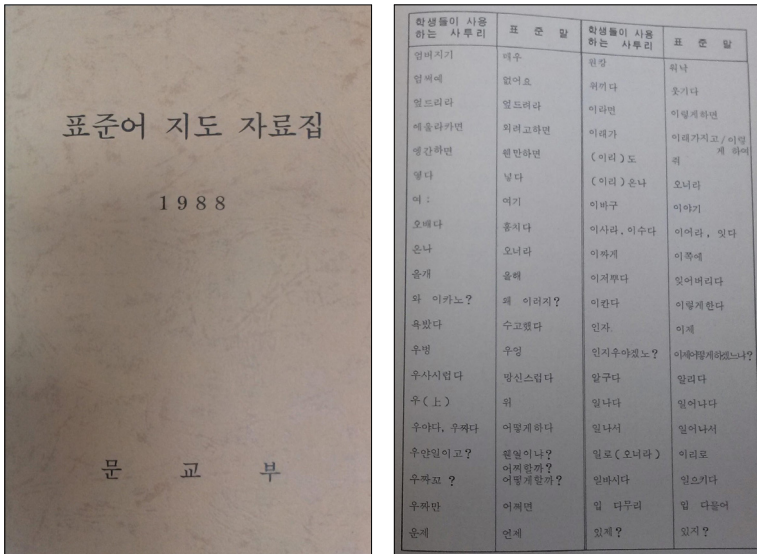
**권창섭** 아무리 표준어의 영향이 강했다고 해도 지역 방언이 어떻게 지금처럼 그 기력을 잃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최명옥**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1980년대에 있었던 강력한 표준어 교육 정책입니다. 당시 위정자들은 후진국에서 중진국 대열에 들어선 국가의 국민이 지녀야 할 소양의 하나가 표준어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의 초·중·고등학교 교문에 “방언을 박멸하자”와 같은 현수막이 붙어 있었지요. 그리고 문교부(지금의 교육부)에서는 《국어 순화 자료집》과 《표준어 지도 자료집》 등을 만들어 전국 학교에 배포하고 그것을 활용하여 ‘곱고, 바르고, 품위 있는’ 표준어를 사용하도록 지도했습니다. 그때 ‘방언’은 ‘기생충’과 같은 취급을 받았습시다.

**권창섭** 새마을 운동 당시의 “쥐를 잡자”라는 문구에서 ‘쥐’와 방언이 같은 격이었군요.

**최명옥** 이거 보십시오. 이게 1988년도에 나온 《표준어 지도 자료집》

[그림 1] 《표준어 지도 자료집》



입니다. 이걸 가지고 교사들은 학생들이 사용하는 지역 방언을 표준어로 교정하는 교육을 했던 것이죠. 이 기준에 따르면 제주도 방언은 거의 대부분이 사용해서는 안 되는 말이 됩니다.

**권창섭** 실제로는 그 교사들도 그 지역의 방언을 사용했을 텐데 말이죠.

**최명옥** ‘나는 바닷 풍 해도 너는 바람 풍 해라’와 같은 식이죠.

**권창섭** 어미 게가 새끼 게더러 너만은 똑바로 걸으라고 하는 꼴이군요.

**최명옥** 지역 방언이 극히 위축된 다른 하나의 이유는 우리 사회가 농업 사회에서 산업 사회로 바뀌면서 농촌의 젊은 층이 대도시나 산업 도시로 이동함으로써 농촌에는 노년층만이 남게 된 결과, 도시에서 성장한 청소년층이 전통적인 지역 방언을 배울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살아 있

는 언어에 방언이 없을 수가 없지요. 다만 주기(週期)가 있을 뿐입니다. 지금은 그 주기에서 방언의 힘이 약해지는 최극단에 있는 것이지요.

**권창섭** 그렇다면 그 신방언은 어떤 요인이 주된 기준이 될까요? 통인과 교통의 발달로 예전처럼 지역적인 요소가 강력하게 작용하지 않으니 사회적인 요인에 의해 방언이 재배열될까요?

**최명옥** 당연하겠죠. 산업화 이전 농업 중심의 사회에서는 수백 년 전의 언어가 전승되듯이 그대로 내려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 비해 지금의 언어 변화 속도는 훨씬 더 빠릅니다. 지역이라는 것이 큰 경계가 되지 않으니 인구의 이동도 훨씬 더 자유롭고 활발하고 따라서 변화의 방향도 훨씬 더 다양하겠지요. 그러니 전통적인 개념의 방언이라는 것은 차차 찾기 힘들게 될 겁니다.

**권창섭** 그래도 한동안은 각 지방에서 그 지역어의 특색을 관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최명옥** 네. 변화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골격은 유지하겠죠. 가장 변화하기 쉬운 것이 뭘까요? 음운, 어휘, 이런 것입니다. 문법은 변하기 어렵습니다. 그 기본적인 골격 위에서 변화가 나타나겠죠.

**권창섭** 확실히 지방에 가 보거나 하면 아직, 매우 어린 학생들도 어미라든가, 성조, 억양과 같은 요소들은 그 지역 방언의 특색을 보여 주더라고요.

**최명옥** 변하기 쉽지 않은 요소이니까요. 그 바탕 위에서 재배열을 관찰할 수 있겠죠.

**권창섭** 그런데 요즘 또 상황을 살펴보면 지역 방언이 소멸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다른 한편 지역 방언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는 분위기도 관찰됩니다. 점차 사회가 다양성을 추구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방언 사용자들에 대한 인식이 이른바 ‘호감’으로 전환되는 것도 눈에 보

이고요. 몇몇 드라마에서는 경상도 방언을 전면에 내세운 것도 그에 일조한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방언에 대한 생각을 달리할 수 있게 만드는 기제가 되진 않을까요?

**최명옥** 우스개로 대통령이 어느 지역 출신이냐에 따라 드라마에서 특정 지역 방언을 취급하는 방식이 달라진다고도 하죠. 그래서 경상도 방언이나 전라도 방언은 전 지역 언중에게 익숙해진 듯합니다. 그런 잦은 노출이 인식을 달리하게 만들 수 있겠지요. 그러나 1965년도에 제가 서울에 올라왔을 때만 해도 사정이 지금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제가 무슨 말만 하면 사람들이 돌아봐서 제대로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높고 낮은 성조와 사투리가 주목의 대상이 되는 것 같아서 우선 높낮이의 폭을 줄이고 표준어 단어를 쓰려고 노력을 했지요. 그리고 강의실에서 말을 빠른 속도로 하게 되면 올려서 잘 전달되지 않아 말의 속도도 느리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그런지 방언 조사를 나가면 어떤 제보자는 저더러 충청도 사람이냐고 묻기도 했어요.(웃음)

**권창섭** 선생님, 혹시 요즘 방영 중인 드라마 ‘정도전’ 보십니까?

**최명옥** 챙겨 보진 못하고 간간이 보고는 있어요.

**권창섭** 그 드라마를 보니 함경도 출신인 이성계를 도당의 다른 권문 세족들이 말투를 빌미로 트집 잡으며 변방 출신 촌뜨기라고 업신여기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 당시에 서울말(당시에는 개경말)의 우세, 지역 방언에 대한 멸시와 편견이 존재했던 걸까요?

**최명옥** 그렇죠. 《훈민정음 해례본》을 보면 ‘어린이의 말이나 지방 말’에 ‘기 간’에서 보는 것과 같은 이중 모음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지역 방언이 존재하였고 사람들이 그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표준어가 없었을 것이므로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도당의 대신들이나 집현전 학자들은 각자의 성장지 말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인라이히(Weinreich)<sup>5)</sup>는, 계층상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화자가 소수라도 상위 계층의 말이 다수의 하위 계층의 말에 영향을 미치며, 계층상의 차이가 없을 때에는 다수 화자의 말이 소수 화자의 말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사는 사람은 지방 출신자를 깔보았을 것이며, 지방 출신자의 말 또한 낮게 취급했을 것입니다. 현재 지방 출신자가 서울로 오거나 서울을 비롯한 중부 지역의 출신자가 지방으로 가거나 하면, 가장 먼저 말에 변화가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로 이주한 사람이 그 사회에 동화되려면 가장 먼저 그 사회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에 동화되려고 합니다. 의사소통에서 사용하는 말이 다르면 서로 이질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권창섭** 선생님께서도 그러셨나요?

**최명옥** 제가 사용하는 존대 서술어미는 ‘-임미다, -심미다’이고 존대 명령어미는 ‘-으(시)이소’나 ‘-으십시오’이지만 서울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은 ‘-입니다, -습니다’와 ‘-으세요’입니다. 내가 학생으로서 서울에 거주할 때에는 ‘-심미다’를 ‘-습니다’로 고쳐 말할 수는 있는데, 명령어미를 ‘-으세요’로 고쳐 말하는 것은 마음이 간지러워서 차마 할 수 없었습니다.(웃음) 지금은 서울에 거주하니까 자연스럽게 그 어미를 사용하지만.

**권창섭** 그러한 변화는 언어 외적인 요인, 다시 말하면 사회적인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것으로 현대 국어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는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최명옥** 합당한 예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요즘 청소년들이 사

5) 우리엘 바인라이히(Uriel Weinreich, 1926~1967), 폴란드 출신의 언어학자로 언어와 언어 사이의 접촉 등 사회언어학과 방언학 분야의 연구에 큰 업적을 남겼다.

용하는 ‘참 웃기다’나 ‘안 도망간다’나 ‘안 말한다’와 같은 말이나 주로 서비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요즈음 그 제품은 품질이 좋습니다’나 ‘주사가 좀 아프습니다’와 같은 말이 그런 예에 속하지 않을까 합니다. 실제로 그런 표현은 문법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 말을 문법에 맞게 하면, ‘참 웃긴다’, ‘도망가지 않는다/도망 안 간다’, ‘말하지 않는다/말 안 한다’나 ‘요즈음 그 제품은 품질입니다’, ‘주사가 좀 아픉니다’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사이 일어나는 이러한 변화에 대해 무엇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그 변화의 요인은 무엇인가를 주의 깊게 관찰하여 해결안을 찾아내는 것이 언어학자들의 큰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권창섭** 이렇게 방언 분화의 축을 담당하는 기준이 지역적인 것에서 사회적인 것으로 옮겨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께서는 아직 한국에서 사회 언어학 연구가 쉽지 않다고 누누이 말씀하셨는데요. 그 까닭과 사회 언어학 연구와 사회 방언 연구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지요.

**최명옥** 사회 언어학 연구라는 것은 사회와 관련한 언어 연구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회적 집단에 따라 동일한 사실을 표현하는 방법이 달라지는 상황을 연구하는 것이 사회 언어학 연구입니다. 이때 집단에 따라 동일한 사실을 표현하는 방법의 차이를 사회적인 요소인 ‘나이, 성별, 직업, 학력, 경제’ 등의 기준과 관련지어 밝혀 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제보자를 대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회 방언 연구는 그와 다릅니다. 높은 산이나 큰 강과 같은 방언 분화의 요인은 없지만 언어적 차이를 보이는 인접하는 두 지역의 말을 사회 방언이라 합니다. 사회 방언 연구는 그러한 사회 방언을 언어학적 기준에 따라 연구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 연구 방법은 대비 방언 연구와 동일하지만, 두 사회 방언이 가진 언어적 차이를 가져온 사

회적 요인을 찾는 것이 사회 방언 연구가 대비 방언 연구와 구별되는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산업 사회로 바뀌면서 공업 지대가 새로 생기고 경제적으로 빈부의 차이가 크게 생겨 거주 지역이 달라지는 등 사회적 변동이 일어나고 있으나 아직은 ‘나이’ 이외에 ‘성별, 직업, 학력, 경제’ 등에 따라 언어적 차이를 보이는 집단이 형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상당 기간은 ‘한국어의 사회 언어학 연구’라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권창섭** 영국의 계층(class), 인도의 카스트 caste), 미국의 인종(race) 등처럼 명징한 사회적 변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군요.

**최명옥** 그렇죠. 한 집단과 한 집단을 명백히 구분하는 기준이 딱히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권창섭** 명확하게 분화가 되지는 않을지라도 어떤 기준에 따라서 관찰해 보았을 때 경향성 같은 것을 파악할 수는 있지 않을까요?

**최명옥** 우리 사회가 앞으로 집단 간에 언어적 차이를 보일 수 있는 바탕을 형성하고 있는 이때에 조사를 해 놓고, 일정한 기간을 두고 그런 조사를 한다면, 나중에 혼란이 안정되었을 때, 집단 간의 언어 차이가 형성되는 과정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작은 낱실과 씨실의 의미를 잘 생각해야

**권창섭** 그렇다면 지금 지역 방언이 사라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국어 학계에서 해야 할 시급한 과제는 무엇일까요?

**최명옥** 살아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계속 자료를 조사하고 수집해 나가야죠. 지역 방언이 더 사라지기 전에 말이죠. 언어라는 것은 무한대

이기 때문에 ‘이만큼 조사해 놓았으니 되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서 는 안 돼요. 할 수 있는 데까지는 계속 조사를 해서 자료를 모아 놓아야 합니다. 그런 것이 차후에 이 분야를 연구하고자 하는 이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럴 때에 생각나는 것이 미국의 문화 인류학자인 보에스(Boas)의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한 언어의 기록을 통하여 더 깊은 지식을 끌어 내는 방법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고고학자들이 고대 문화를 연구하고 천문학자들이 하늘 멀리 천체를 연구하듯이, 이런 류의 말들(인디언의 말들)이 기록되어야 하는 강한, 본능적인 충동을 느낀다. [중략] 미국 본토 언어 가운데에는 몇몇 노인들만이 사용하는 말도 많고, 단 한 사람만이 사용하는 말도 있다. 그들이 죽으면 그 언어도 사라질 것이다. 그동안 많은 언어가 사라졌다. 그 언어들을 되살릴 가능성은 없다. 남북 아메리카 특히 우리나라에서 살릴 수 있는 언어는 무엇이든지 살려 내어야 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임무인 것 같다. 다른 국가의 국민이나 우리의 후손은 우리가 다른 실제적인 일을 보다 많이 성취하는 것보다 이 일을 성취하는 것을 더 높이 평가할 것이다. 더욱이 그것은 제한된 시간에 이루지 않으면 안 될 일이다.”<sup>6)</sup>

지금 국어가 직면한 상황이 당시 아메리칸 인디언의 언어들이 직면하고 있던 상황과 같다고 10여 년 전부터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남기심 선생님께서 국립국어원 원장이 되셨습니다. 저는 국어원으로 가서 선생님께서 국립국어원장으로서 무슨 일을 꼭 하셔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저에게 어떤 생

---

6) 보에스(F. Boas)가 *American Council of Learned Societies Bulletin* 29(1939)에 발표한 “A Report of the Committee on Research in American Native Languages, 1927~1937”의 일부임.



각을 하고 있는지 되물으시더군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원장으로 계신 동안이라도 사라져 가는 지역 방언을 최대한으로 수집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께서도 저와 같은 생각이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지역어 조사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남북한 공동 지역어 조사로 계획이 진행되면서 자연어만을 조사한다는 애초의 생각을 바꾸어, 전반부는 자연어를 조사하고 후반부는 어휘를 조사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몇 년 후에 북측이 이 조사에서 손을 떼었습니다. 그리하여 남한만의 조사가 지난 10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권창섭** 지난해에 마무리되었죠?

**최명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올해에 그 자료를 필요로 하는 모든 연구자에게 공개한다고 했습니다. 관심 있으면 구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권창섭** 이러한 조사 사업이 계속 진행될 수 있을까요?

**최명옥** 단언할 수는 없지만 계속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권창섭** 최근 흥미로운 방언 관련 저술들이 출간되었고 또 선생님께서도 참여하신 《한국 언어 지도》 역시 학계뿐 아니라 여러 곳에서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요.

**최명옥** 방언이라는 것이 시각적으로 확인될 수 없는 것인데 지도로 시각화되었으니 관심을 많이 받게 되었겠지요. 그 지도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교육 측면에 활용할 수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 지도책이 초·중·고등학교의 국어 시간에 많이 활용된다면 학생들이 국어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흥미를 느낄 것 같은데, 문제는 그 지도의 내용을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지도에 A라는 방언형이 있고 B라는 방언형이 있을 때 어떤 요인들로 그렇게 분화되었는지, 그리고 그러한 분화의 내용을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한다는 것은 쉽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그 지도를 볼 때마다 늘 아쉬운 점은 북한 쪽이 제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언형의 역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권창섭** 지역어 조사 사업이 공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이 다시 드네요. 화제를 좀 바꾸어, 선생님께서는 국어학의 정체성에 대해 회의를 가졌던 적은 없으셨는지요?

**최명옥** 대학 재학 시절에 다른 과 친구에게서 “국어국문학과는 우리 말이나 글을 연구하는데 그런 건 생산성이 전혀 없는 것 아니냐?”라는 식의 질문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전공에 대해 잘 알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 질문에 합당한 대답이 생각나지 않아 웃고 넘겼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질문은 매우 오랫동안 내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

**권창섭** 국어국문학과를 다닌 사람이라면 누구나 들어 보았을 법한 질문이네요. 지금은 당연히 당당한 답변을 하실 수 있으시겠지요?

**최명옥** 그 질문에 대해 어떤 말로써 국어학을 정당화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하던 중에 서머셋 몸(William Somerset Maugham)의 《인간의 굴레(Of Human Bondage)》라는 소설을 읽게 되었습니다. 안 읽어 보면 꼭 읽어 보세요. 그 소설에서 페르시아 양탄자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페르시아 양탄자는 화려하고 아름답기 그지없지만, 양탄자를 구성하고 있는 씨실과 날실을 다 풀어 헤쳐 놓아 보면 그 각각의 실들은 하등 아름다운 점이 없어요. 그런데 개별적으로 보면 아름다움이 없는 그것들이 씨실과 날실로서 자신이 있어야 할 곳에 가서 다른 실들과 엮이면서 아름다움을 만드는 것이죠. 사회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별별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기에 사회라는 것이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이죠. 국어국문학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자체만으

로는 의미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철학과, 사회학과 등 다른 학문과 엮이고 또 조화를 이루면서 그 가치와 의미가 확실히 생기는 것이겠죠.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정당화했지요.(웃음)

**권창섭** 국어국문학과 그 자체만으로도 가지는 의미가 또 있겠지요?

**최명옥** 인간의 사고와 언어가 얼마나 밀접한지는 모두가 아는 사실이죠. 언어가 사고를 지배하고 있기에 국어를 연구한다는 것은 곧 국어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사고를 연구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의 사고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이를 보다 논리적으로 체계화하는 것이 곧 학문입니다. 그렇다면 국어학은 그 자체로서도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 자료라는 풍부한 바탕 위에서 이루어져야 할 국어학 연구

**권창섭** 일본에도 몇 해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일본의 학문 연구 방향과 한국의 그것이 어떤 차이가 있나요?

**최명옥** 그리 오래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한 차이는 느꼈어요. 일본의 연구자들은 무엇보다 철저한 자료 정리를 선행하고 우선합니다. 반면 자료 연구는 철저한 것에 비해 그것을 이론화하는 데에는 우리보다 약한 것 같아요. 우리는 이론적인 측면은 낫다고 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자료를 철저히 구축하고 정리하는 것은 일본에 뒤지는 것 같아요. 그 둘이 조화가 되면 더욱 좋겠죠.

**권창섭** 그럼 마지막으로 국어학계의 전반적인 분위기에 대해서나 후학들에게 해 주실 말씀이 있으신지요.

**최명옥** 요즘 논문들은 고민을 많이 해서 내놓은 것들이 아닌 듯해서

안타까워요. 여러 이유들 때문에 설익은 생각들이라도 발표해서 논문의 수를 늘려야 하는 것이 현재 한국의 연구 풍토이니깐요. ‘심약 이승녕 국어학 저술상’<sup>7)</sup>을 선정하려 해도 그 대상자가 없는 형편이에요. 북한은 경우 196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모든 교수 및 연구자들이 문화어 보급에 나서야 했고 연구를 하지 못했어요. 1980년대 중반 이후 나온 북한의 연구 논문이란 것을 보면 읽을 가치가 없을 정도입니다. 왜 그렇겠어요? 20년 가까이 연구에서 손을 놓았으니까요. 남한에서는 학문 연구가 계속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사실 학문 연구를 위한 분위기라기보다는 논문을 생산해야만 하는 분위기이죠. 이러한 분위기가 계속되다 보면 진지한 학문 연구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권창섭** 수적, 양적 평가가 역시 문제 되는 것이겠죠.

**최명옥** 네. 사회적인 여건, 제도가 안타깝습니다. 논문 수를 잣대로 신입 교수를 채용한다든가, 논문을 발표하면 연구비를 준다든가 하는 등, 속된 말로 하면 돈이 학문을 망치고 있는 셈이죠. 자연 과학이나 공학 분야는 돈을 들이면 들일수록 학문이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인문학은 반드시 그렇진 않죠.

또 하나 아쉬운 것이 요즘 신진 학자들이 이론 중심으로 연구하는 경향이 있는데 거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요즘 논문들을 보면 ‘누구의 학설에 의하면’, ‘무슨 이론에 의하면’을 전제로 해서 그에 의존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국어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론을 적용하는 것보다도 자료에 대한 관찰이 우선시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권창섭** 연역을 위한 귀납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는데 연역부터 해서

---

7) 심약 이승녕 선생의 학문과 업적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상으로 우수한 국어 연구 저서를 펴낸 중견 학자 1인을 선정하여 수여하고 있다.

는 안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최명옥** 너무 연역에만 매달리고 있지요. 귀납 과정과 결과가 많을수록 그에 후행하는 연역이 세련되어질 텐데, 연역만이 우선되고 있습니다. 바탕이 튼튼하면 할수록 더욱더 제대로 기둥이 세워질 수 있겠지요. 바탕을 튼튼히 하기 위해 노력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권창섭** 오랜 시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sup>8)</sup>

---

8) 이 외에도 대학 현장에서 글쓰기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많은 말씀을 해주셨으나 한정된 지면상의 문제로 여기에 다 옮기지는 못하였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서 나온, 《관악어문연구》 36, 최명옥 교수 정년퇴임기념호의 ‘대담-삶과 학문’을 참조할 수 있다.